주간 테러동향
Weekly Terrorism Trends

'20. 5.15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

유 럽

○ **네덜란드, 코로나19 여파에도 테러 발생 우려**

- 5.7 NCTV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지하디스트·극우세력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지만, 일부 조직원들은 여전히 테러계획을 모의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언제든 테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

  * 네덜란드內 지하디스트는 약 500명이며, 동조세력은 수 천명으로 추산

○ **스페인 경찰, 테러 모의 ISIS 추종자 체포**

- 5.8 스페인 경찰은 지난 3월 코로나19 억제를 위한 全 국민 외출금지 기간 중 ISIS에 심취하여 SNS上 ISIS 충성맹세를 게재하고, 바르셀로나 테러를 모의한 모로코 출신 남성을 긴급 체포

○ **영국, 테러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필요성 제기**

- 5.12 英 왕립합동군사연구소는 「테러리즘과 대중매체」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언론보도는 모방테러를 양산하고 테러의 확산을 부추길 수 있어, '대중의 알 권리'와 '언론의 독립성' 모두를 고려한 윤리적 언론보도 가이드 라인이 필요하다고 주장

미 주

○ **미국, 극단세력의 테러·폭력 가능성 경고**

- 美 국토안보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불만이 백인 우월주의·反이민·反유대주의자들의 선동과 맞물려 코로나19 안정시까지 테러와 폭력 위험을 가중시키고, 유혈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고 평가

아 · 태평양

○ **아프간, ISIS 고위 지도자 3명 체포**

- 5.11 아프간 국가안보국은 수도 카불에서 ISIS 고위 지도자 색출 및 주요 거점 파괴를 위한 대테러戰을 전개, ISIS 南아시아 최고 지휘관 「아부 오마르 코라사니」 등 고위 지도자 3명을 체포했다고 발표

  * 아프간군은 5.6에도 ISIS와 하카니 무장세력 8명을 체포

○ **인도, '제2 뭄바이 테러' 첩보 입수**

- 5.11 인도 정보당국은 '라쉬카르 에 타이바(LeT)'*가 '93년 뭄바이 테러를 기획한 범죄조직 거물급 인사 「다우드」**와 연대하여 제2의 뭄바이 테러를 계획 중이라는 첩보를 입수했다고 발표

  * 파키스탄에 거점을 둔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단체

  ** 「다우드」는 뭄바이 테러 이후 파키스탄에 은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

중 동

○ **이라크, ISIS 고위 지도자 사살**

- 5.10 이라크의 親이란 시아파 민병대(PMU)는 최근 디얄라 동부지역에서 ISIS 고위 지도자를 사살했으며, 알 안바르州에서는 ISIS 테러 첩보를 입수해 테러리스트 잠입을 저지했다고 발표

아프리카

○ **니제르, 보코하람 조직원 75명 사살**

- 5.13 AFP통신은 니제르군이 연합군과 합동작전을 통해 나이지리아 국경도시 디파州와 타즈湖 주변 등을 공습, 보코하람 지부를 파괴하고 조직원 75명을 사살했다고 보도

이라크 바그다드 연쇄 폭탄테러

○ '16.5.11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일대에서 대규모 연쇄(3차례) 폭탄 테러로 96명 사망·167명 부상

△ 바그다드 외곽도시 사드르市 시장에서 차량폭탄 테러(사망 66명, 부상 87명)
△ 바그다드 외곽도시 카드히미야市 광장에서 자살폭탄 테러(사망 18명, 부상 34명)
△ 바그다드 중앙 자미아 경찰 검문소에서 차량폭탄 테러(사망 12명, 부상 46명)

- 1·2차 테러가 발생한 사드르市와 카드히미야市는 시아파 밀집지역으로 인파가 붐비던 시간에 테러가 일어나 많은 사상자 발생

○ 사건 직후 ISIS는 인터넷을 통해 테러 배후를 자처하며 "시아파 무장병력을 목표로 삼았다"고 주장했으나, 희생자 대부분은 민간인으로 확인

○ 이와 관련, 당시 이라크 당국 및 해외언론은 ISIS가 이라크 정부군과 美軍 주도 연합군의 공격으로 상당 부분의 점령지(이라크內 40%→14%)를 잃고, 조직원이 감소하자 세력과시를 위해 테러를 자행한 것이라고 평가

< 수니파와 시아파 >

■ **(구 분)** 예언자 무함마드 死後, 이슬람 공동체(움마) 지도자(칼리프)로 누가 될 것이냐에 대한 계승 문제로 분파
- **수니파** : 공동체 합의로 칼리프를 선출
- **시아파** : 무함마드의 후손만을 칼리프로 인정하며 신성성 부여

■ **(갈등계기) 661년** 무함마드의 사위인 4대 칼리프「알리」가 우마이야 가문에게 암살당하고 우마이야 세습체제로 이어가자,「알리」의 아들「후세인」이 저항하다 680년 이라크 카르발라 지역에서 참혹하게 살해당하는 사건 발생

■ **(세력분포)** 18억명의 이슬람교도 중 **수니파**는 90%, **시아파**는 10% 수준이며 수니파는 사우디·요르단·리비아·파키스탄·아프간 등에서, 시아파는 이란·이라크 등에서 우세

* ISIS·보코하람·알카에다 등은 수니파 테러단체 / 헤즈볼라는 시아파 테러단체